

看護學生의 學業成就에 關한 研究

—大學 看護學生의 心理的 諸特性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李 恩 玉 · 李 米 拉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

= 차 례 =

- I. 序 論
 - 問題의 陳述
 - 研究目的
 - 研究內容
- 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 道 具
 - 對 象
 - 準 據
 - 檢査實施過程 및 節次
 - 統計處理
- III. 結果 및 解釋
- IV. 結論 및 提言
 - 參考文獻
 - 英文抄錄

I. 序 論

1. 問題의 陳述

最近 看護教育 特히 大學看護教育이 大量生産의 傾向과 함께 날로 擴張되어가는 大學環境속에서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指導性을 지닌 專門 看護員(professional nurse)내지는 初步的인 看護學者로 教育시키는 데는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大學全體의 問題로 大學生 中에 入學後 學業成績이 遲進하거나 學業過程에서 落伍되는 學生이 相當數에 達한다는 것이다.

그 한 例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들의 入學當時 入學生數의 87% 밖에 안되고 3年동안 이 敎養課程부의 進級現況은 全學生의 77.2%를

超過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¹⁾.

둘째, 여러 階層의 學校에서 輩出된 卒業看護員이나 在學中인 看護學生의 專門職에 對한 滿足度가 相當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2,3,4,5)}. 그와 同時에 轉科 또는 轉學을 願하는 學生이 續出하고 있으며 轉科(學)理由로서 “看護學이 自己 適性이나 興味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다^{6,7,8)}. 뿐만아니라 適性和 興味에 맞기 때문에 看護學을 擇했다는 學生이 다른 學科에 비해 적게 나타나 있다⁹⁾.

勿論 이러한 問題는 비단 看護學界에 局限된 問題는 아니고 다른 여러 分野에서도 겪고 있는 陳痛이다.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과 農科大學 卒業生을 對象으로 하여 研究한 結果에서도 近年에 차츰 非專攻分野로 進出하는 卒業生數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發見되었다¹⁰⁾. 萬一 이와 같은 事實을 放置해 두면 學生들이 專攻學門에 對한 不滿 내지는 無關心 속에서 學業遲進, 中途脫落 및 卒業後 非專攻分野로의 轉向 등의 경우가 허다하게 되고 이는 個人的으로나 國家的으로 時間, 金錢 및 人力資源의 浪費라 하겠다.

2. 研究目的

수업내용이 學校마다 비슷한 中學校에서의 學力檢査結果는 高等學校에서의 學科成績을 豫言하는 좋은 手段이 되며 高等學校에서의 綜合成績이 大學入學後 學業成就度를 豫言하는데 比較的 妥當度가 높은 豫言道具라고 發表 되는 반면^{11,12)} 다른 研究者들은 高等學校의 成績이나 大學入學成績은 大學의 特殊한 學科에서의 成就度를 豫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13,14,15)}. 學生은 自己의 學業成績本位로 學科를 選擇하고 大學은

大學入學試驗成績을 爲主로 學生을 選拔했으며 學門의 特殊性과 學生의 興味 및 適性이 考慮되지 않았기 때문에 職業 滿足度가 낮고 轉科 希望者가 많았다면 學生의 學業成績 이외에 諸般 心理的 特性이 그들의 學業成就에 크게 作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로 看護學生의 學業成就와 諸般 心理的 特性 而에 어떤 相關關係가 있는가를 究明하는 것이 本 研究의 主目的이다.

그리하여 看護教育에서 學生의 學業成就度를 미리 豫言할 수 있는 道具를 開發하여 學業이 遲進한 學生이나 落伍可能한 學生을 되도록 빠른 時期에 發見하여 적절한 指導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新入生 選拔基準의 한 方法으로 使用할 수 있다면 看護教育의 問題點을 解決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研究內容

上述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 研究에서는 標準화된 性格檢査, 興味檢査 및 自我概念檢査를 看護學生에게 實施하여 그 結果로 얻어진 心理的 諸特性과 그들의 學業成績과의 相關關係를 研究하였다.

本 研究에서 上記한 세가지의 心理檢査를 選擇하게 된 動機는 다음과 같다.

Burgess¹⁶⁾의 看護大學生의 成功的인 學業成就를 豫言하는 道具를 糾明하는 研究에서 知能은 그 役割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aylor¹⁷⁾는 臨床科目에서는 理論科目에서보다 知能要因이 덜 要求되나 學點을 豫言하는 道具로서는 正確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檢査實施상의 隘路點을 考慮하여 知能檢査는 包含시키지 않았다.

Taylor¹⁸⁾는 看護學生의 學業成就의 豫言力에 關한 여러 研究를 考察한 結果 興味檢査, 性格檢査 등의 心理檢査가 學業成就를 豫言하는 道具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여러 學者들은 學業成就者와 中途脫落者 사이에는 顯著的한 性格에서의 差異가 있다고 發表했다^{19, 20, 21, 22)}. 이렇듯 學者마다 다른 研究結果를 發表하고 있고 學生들은 看護學이 自己의 興味와 適性에 맞지 않는다고 表現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標準화된 興味檢査와 性格檢査를 利用하여 學業成

就와의 相關關係를 살피볼 必要性을 느꼈다.

Bloom²³⁾은 學業成就의 成功的인 經驗이 數科 興味를 높이는데 貢獻했는지, 興味가 成功的인 學業成就에 影響을 미쳤는지 그 因果關係는 分明치 않지만 相互因果의 일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리고 이러한 成功的인 經驗은 學習에 對하여 肯定的인 態度를 形成하게 되고 나아가서 肯定的인 自我概念이 形成된다고 하였다. 이와 反對로 失敗의 經驗은 不滿이나 敵意感을 일으키며 나아가서 挫折感을 經驗하게 되며 이러한 經驗이 累積되면 學習에 대한 興味를 잃고 否定的인 學習態度를 形成하게 되며 結果의으로 否定的인 自我概念을 形成하게 될 것이다^{24, 25)}. 또한 成功的인 學業成就經驗은 보다 肯定的인 自我概念을 形成하는데 貢獻한다는 事實은 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Diller와 Bills의 研究에서도 나타났²⁶⁾. 그리고 Morse도 能力에對한 自我概念이 學業成就에 있어서 IQ보다 더 豫言力이 높다고 밝혔다²⁷⁾.

이렇게 自我概念이 學生의 學業成就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看護學生을 對象으로하여 研究한 結果가 많지 않아 韓國에서 標準화된 檢査를 道具로 하여 이 研究에서 다루어 보았다.

앞에서 記述한 內容을 基礎로 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의 相關係數를 算出하였다.

- 1) 各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興味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 2) 全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興味檢査의 相關係數
- 3) 各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性格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 4) 全學生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性格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 5) 各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 6) 全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1. 道 具

이 研究에서 사용된 道具는 興味檢査(interest

test), 一般性格檢査(personality test) 및 自我概念檢査(test of self-concept)의 心理檢査와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의 平點이다.

i) 心理檢査의 構造

a. 興味檢査

이 研究에서 使用한 興味檢査는 正법모에 의 해 제작 및 標準化된 것이며 그 檢査領域과 特徵은 다음과 같다.

- 美術의 興味(A:artistic interest)
- 音樂의 興味(M:music interest)
- 文學의 興味(L:literary interest)
- 生物科學的 興味(Bs:scientific interest-biological)
- 物像科學的 興味(Ps:scientific interest-physical)
- 事業的 興味(B:business interest)
- 政治的 興味(P:political interest)
- 社會的 興味(H:humanitarian interest)
- 事務的 興味(C:clerical interest)
- 運動的 興味(O:out-door interest)

b. 一般性格檢査

김기석에 의해 제작 및 標準化된 檢査를 使用하였으며 그 檢査領域은 人間이 日常生活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的 性格의 다섯 가지 面 즉 支配性(A要因: ascendancy), 責任性(R要因: responsibility), 情緒的 安全性(E要因: emotional stability), 社交性(S要因: sociability), 및 總點(T點: total Score, 自信感-劣等感)이다.

c. 自我概念檢査

정원식의 自我概念檢査를 使用하였으며 이는 身體的 自我點數(A:physical self score), 道德的 自我點數(B:moral ethical self score), 性格的 自我點數(C:personal self score), 家庭的 自我點數(D:family self score), 社會的 自我點數(E:social self score,) 自我同一性點數(I: self identity score), 自我受容點數(II:self satisfaction score), 自我行動點數(III:self behavior score), 總自我肯定點數(TP:total positive self score), 總自我變散點數(T.V.:total variability score), 外的變散點數(R.V.:row variability score), 內的變散點數(C.V.:colomn variability score), 自我評價點數(S.C.:self criticism) 및 分布點數(d:distribution score)이다.

ii) 學業成績

一, 二, 三學年에서의 成績을 一般敎養敎育(general education), 補助科學(supporting sciences) 및 專門敎育(professional education)으로 分類하였으며 A를 3點, B를 2點, C를 1點, D를 0點, F를 -1點으로 配點하였다.

2. 對 象

이 研究의 對象은 1972學년도 一學期에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에 등록한 二, 三, 四學年 學生 全員 240名을 選擇했으며 一學年은 大學에서의 成績이 없으므로 對象에서 除外했다.

3. 準 據

本 研究의 對象集團에서 실시된 檢査의 學業 成就度 豫言을 위해 選定된 準據는 大學入學後 취득한 總平點(Total Grade Point Average), 一般敎養敎育의 平點(G.P.A.of general education), 補助科學의 平點(G.P.A. of supporting sciences) 및 專門敎育平點(G.P.A. of professional education)이다.

4. 檢査實施課程 및 節次

檢査實施는 本 研究者와 研究補助者가 各 檢査要綱에 따라 1972年 4月 3日 부터 10日 사이에 各 學級에 들어가 研究目的과 檢査上의 指示 사항을 설명하고 검사지를 배부하여 기입이 끝나는 대로 회수했다. 各 檢査時 一定한 時間제한은 주지 않았으며 결석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얻어 個別的으로 實施했다.

5. 統計處理

興味檢査, 一般性格檢査 및 自我概念檢査의 各 要因과 各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의 상관계수를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III. 結果 및 解釋

1. 各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興味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a) 二學年 學生의 學業成績과 興味檢査의 諸特

性과의 相關係數를 計算한 結果(Table 1-a):

Table 1-a.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interest test in sophomore class

(N=83)

Test	G.P.A.	Total	G.E.	S.S.	P.E.
A(미술)	.030	-.046	-.082	.052	
M(음악)	.020	.032	-.225*	-.194	
L(문학)	.003	-.011	-.160	-.015	
Bs(생물)	.273*	.002	.367**	.111	
Ps(물상과학)	.205	.061	.243*	.156	
B(사업)	-.087	-.164	-.169	-0.044	
P(정치)	-.145	-.267*	-.144	.082	
H(사회)	.238*	.165	.124	.036	
C(사무)	.052	.098	-.048	-.127	
O(운동)	-.004	-.035	-.114	-.073	

* = P < .05. ** = P < .01.

生物科學과 人間福祉에 關係되는 事業(Humanitarian)에 興味가 많은 學生이 總平點(total grade point averages) 역시 높았다($r = .273$ and $.238$, $p < .05$). 이는 看護學科 入學試驗 出題科目의 樣狀으로 보아 生物科學에 興味가 많고 이 科目에서 成績이 좋은 學生을 選拔했을 可能性이 많으며 學科選擇動機로 看護學이 社會와 人類福祉에 貢獻할 수 있는 學問이기 때문이라는 學生이 많은 것²⁹⁾으로 보아 어느程度 納得이 가는 結果이다.

一學年에서 履修한 學科目中 一般敎養敎育(general education)이 대부분이고 그중 正의 相關關係에 있는 興味要因은 하나도 없었으며 集團生活, 政治生活, 言論生活에 關係되는 여러 活動에 興味(Political)가 높은 學生은 總平點이 낮았다($r = -.267$, $p < .05$). Burgess와 Duffey²⁹⁾의 研究結果에서는 文學의 興味와 美術에 對한 興味가 많은 學生이 學業成績도 優秀하다고 發表되었는데 이는 本研究의 結果 큰 差異가 있다. 이는 標集團이 屬해있는 學校의 敎育目的, 敎育課程 및 敎育方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一學年에서 履修한 補助科學(supporting sciences)의 대부분은 醫科學이므로 生物科學에 興味가 많은 學生의 補助科學成績이 아주 좋고($r = .367$, $p < .01$) 物象科學에 興미를 나타내는 學

生도 補助科學成績이 좋게 ($r = .243$, $p < .05$) 나온 것은 당연한 結果라 하겠다. 二學年 學生中 音樂에 興味있는 學生은 補助科學平點이 나쁘게 나타났다($r = -.225$, $p < .05$).

一學年에서의 專門敎育(professional education)은 극히 制限되고 基礎적인 二科目 程度에 지나지 않으므로 興味檢査의 어느 特性과도 有意的 相關關係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b) 三學年 學生의 興味檢査의 諸特性과 二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의 相關係數를 測定한 結果(Table 1-b):

Table 1-b.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interest test in junior class.

(N=75)

Test	G.P.A.	Total	G.E.	S.S.	P.E.
A	-.141	-.121	-.268*	-.103	
M	-.174	-.169	-.258*	-.234*	
L	-.113	-.093	-.255*	-.226*	
Bs	.103	.095	-.095	.125	
Ps	.307**	.256*	-.029	.100	
B	-.236*	-.143	-.148	.183	
P	.259*	.086	-.071	.174	
H	.405**	.057	-.162	.137	
C	.376**	.122	-.063	.000	
O	.331**	.146	-.003	.173	

* = P < .05 ** = P < .01

物理的, 化學的인 物象現象에 關한 研究의 興味(Ps), 人間福祉에 關係되는 여러가지 活動에 關한 興味(H), 事務에 關係되는 活動에 關한 興味(C) 및 運動場이나 野外에서의 여러 活動에 關한 興味(O)가 많은 學生은 總平點도 相當히 높았다($Ps \rightarrow r = .307$, $p < .01$; $H \rightarrow r = .405$, $p < .01$; $C \rightarrow r = .376$, $p < .01$; $O \rightarrow r = .331$, $p < .01$).

Johnson과 Leonard³⁰⁾의 研究結果로는 科學에 興味가 많은 學生과 事務의 興味が 적은 學生이 學業成績도 優秀하다는 結果와는 一部 一致하고 一部 相異한 結果이다.

그리고 集團活動, 政治活動 및 言論活動에 興味(P)가 있는 學生도 總平點이 높았다($r = .259$, $p < .05$). 그러나 經濟的 및 事業的 活動(B)에 興味가 있는 學生은 反對로 總平點이 낮았다.

($r = -.236, p < .05$).

一般敎養敎育은 二學年까지 繼續되는데 三學年 學生의 敎養成績과 興味要因과의 關係는 二學年 學生의 一學年에서의 相關關係와는 달리 物象科學的 興味가 많을수록 一般敎養敎育平點이 높았다($r = .256, p < .05$). 二學年까지의 補助科學(S.S.)은 대부분의 醫科學과 일부의 敎育學에 關한 科目으로 構成되는데 이들은 美術的 興味(A), 音樂的 興味(M) 및 文學的 興味(L)와 負의 相關關係를 나타냈다($A \rightarrow r = -.268, p < .05$; $M \rightarrow r = -.258, p < .05$; $L \rightarrow r = -.255, p < .05$).

二學年까지의 專門敎育(P.E.)은 基礎的인 專門敎育으로서 二學年 學生의 一學年 成績과 興味要因과의 關係與否에서와 마찬가지로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는 要因이 없었으며 音樂(M)과 文學(L)에 興味가 많은 學生일수록 專門敎育平點이 낮았다($M \rightarrow r = -.234, p < .05$; $L \rightarrow r = -.226, p < .05$). 이 結果 역시 1965年과 1966年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의 看護大學에 入學한 學生들에게서 나타난 結果와는 差異가 있었다³¹⁾. 專門敎育平點과 文學 및 音樂에 對한 興味와의 負의 相關關係는 基礎專門敎育에 關心이 없는 學生들이 補償的으로 다른 分野에 깊은 興味를 갖게 되었던지, 아니면 지나친 他分野의 沒頭로 專門科目의 成績이 下向한 것으로 推測된다.

c) 四學年學生의 興味檢査의 諸特性과 三學年

Table 1—c.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interest test in senior class

(N=82)

Test	G.P.A.	Total	G.E.	S.S.	P.E.
A	-.289**	.217*	-.219*	-.328**	
M	-.110	.770**	-.080	-.174	
L	-.007	-.168	.035	.012	
Bs	.112	.031	.138	.054	
Ps	.168	.070	.174	.139	
B	-.158	-.237*	-.184	-.120	
P	.073	-.092	.037	.086	
H	.186	-.087	.087	.166	
C	.095	.029	.030	.215	
O	.027	.017	.000	.106	

* = $P < .05$. ** = $P < .01$.

까지의 學業成績과의 相關係數를 測定한 結果 (Table 1—c):

一般敎養敎育의 전부, 補助科學의 대부분 그리고 專門敎育의 절반 정도를 履修한 四學年 學生中 美術에 對한 興味가 많은 學生일수록 總平點이 낮았다($r = -.289, p < .01$). 이 結果 역시 Burgess와 Duffey³²⁾의 結果와 差異가 있었다.

이미 履修한 科目中 獨特한 專門性을 띤 科目이 많이 包含되면 될 수록 극히 局限된 分野에 興味만이 有意的 相關關係를 보인다. 美術에 對한 興味가 많은 四學年 學生은 一般敎養敎育의 平點만 높고($r = .217, p < .05$) 다른 補助科學이나 專門敎育의 平點은 낮았다($S.S. \rightarrow r = -.219, p < .05$; $P.E. \rightarrow r = -.328, p < .01$).

一般敎養敎育을 다 履修한 四學年 學生은 音樂에 對한 興味가 많으면 많을수록 敎養成績이 높았다($r = .770, p < .01$).

專門敎育을 절반 程度 履修한 四學年 學生들은 美術만이 專門敎育成績과 負의 相關關係($r = -.328, p < .01$)에 있고 다른 어느 興味도 正의 相關關係에 있는 것이 없어 Burgess와 Duffey³³⁾의 結果와는 역시 差異가 있었다.

2. 全學年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興味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二, 三, 四 學年 學生 240名의 學業成績과 興味檢査結果와의 相關係數를 算出한 結果 (Table 2):

Table 2.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from interest test

(N=240)

G.P.A.		Total	G.E.	S.S.	P.E.
Psy. test	A	-.110	.030	-.189**	-.064
	M	-.065	.172**	-.183**	-.174**
	L	-.041	-.077	-.144*	-.079
Inter-est test	Bs	.135*	-.014	.136*	.064
	Ps	.209**	.098	.106	.128*
	B	.141*	-.158*	-.155*	.012
	P	.105	.002	-.098	.127*
	H	.252**	.047	.003	.078
	C	.116	.023	-.005	-.061
	O	.093	.013	-.019	.036

* = $P < 0.05$. ** = $P < 0.01$.

物象科學(Ps)과 人間福祉에 關係되는 活動(H)에 興味가 많은 學生이 總平點도 높았으며 생물 과학과 사업에 흥미가 많은 학생의 綜合성적도 좋게 나타났다 (Bs→r=.135, p<.05; B→r=.141, p<.05).

一般教養教育의 平點은 音樂的 興味(M)와 正의 相關關係(r=.172, p<.01), 事業的 興味와 負의 相關關係였다(r=-.158, p<.05). 대부분의 基礎醫學과 教育學의 科目들로 構成된 補助科學平點은 生物科學에 興味(Bs)가 많은 學生에서 높았고(r=.136, p<.05) 美術과 音樂에 대한 興味와는 1% 水準에서 負의 相關關係였으며 文學的 興味 및 事業的 興味와는 5% 水準에서 負의 相關關係였다(A→r=-.189, p<.01; M→r=-.183, p<.01; L→r=-.144, p<.05; B→r=-.155, p<.05).

專門教育에서는 物象科學(Ps)이나 集團生活, 政治生活 및 言論生活에 關聯되는 活動(P)에 대해 높은 興味가 있는 學生의 成績은 優秀했고(Ps→r=.128, p<.05; P→r=.127, p<.05) 音樂에 興味가 있는 學生의 成績은 낮았다(r=-.174, p<.01).

人類福祉에 關係되는 活動에의 興味는 看護專門教育의 平點과 有意的 正의 相關關係가 있을 것으로 期待되나 專門教育, 一般教養教育, 補助科學의 平點과는 相關關係가 없고 다만 總平點과 1% 水準에서 有意的 正의 關係가 있다 (r=.252, p<.01).

Burgess와 Duffey³⁴⁾도 專門教育의 平點과 社會奉仕의 興味와 아무런 相關關係가 없음을 밝히고 看護學生에게 이런 特性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學生들이 看護學의 選擇動機를 社會奉仕라고 自覺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3. 各學年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性格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a) 二學年學生의 學業成績平點과 性格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를 測定한 結果(Table 3-a):

總平點과 情緒的 安定性(emotional stability)만이 1% 水準에서 負의 相關關係를 보였다(r=-.296, p<.01). 이는 불안해하고 근심적

Table 3-a.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personality test in sophomore class

		(N=83)			
Test	G.P.A.	Total	G.E.	S.S.	P.E.
A		-.073	-.175	-.152	-.085
R		.104	-.041	.127	.029
E		-.296**	.006	.168	.022
S		-.023	-.143	-.058	-.007
T		.052	-.118	.031	-.012

*P<.05. **=P<.01.

정이 많은 學生이 安定感을 가진 學生보다 成績이 좋지 않은 結果를 가져온 Johnson과 Leonard³⁵⁾의 研究와는 判異하게 다른 結果이다.

Yerkes-Dodson Law는 不安과 學習關係가 U字型의 曲線相關關係를 나타내어 불안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을 때 學習速度가 낮고 불안한 狀態가 中間程度일 때 學習速度가 최고로 빠르다는 理論과도 相異한 結果였다³⁶⁾.

b) 三學年學生의 學業成績平點과 性格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를 算出했을 때(Table 3-b):

Table 3-b.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personality test in junior class

		(N=75)			
Test	G.P.A.	Total	G.E.	S.S.	P.E.
A		.226*	-.018	-.179	-.048
R		.571**	.275*	-.010	.214
E		.195	-.051	-.151	-.040
S		.303**	-.063	-.226*	-.023
T		.432**	.033	-.205	-.015

*=P<.05. **=P<.01.

二學年 學生과는 달리 責任性(R), 社會性(S) 및 自信感(T)이 높은 學生은 綜合成績도 相當히 좋았고 支配性(A)이 높은 學生도 成績이 좋았다(R→r=.571, p<.01; S→r=.303, p<.01; T→r=.432, p<.01; A→r=.226, p<.05).

가장 必要한 看護員의 性品에 對해 看護專門職 내지는 非看護職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責任感이 強해야 한다는 사람이 42.8%, 親切性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36.1%로서 다른 要因보다 높게 나타난 홍³⁷⁾의 研究결과와 비교해 본

때 위의 결과는 二學年 學生中 看護職에 적합한 性品인 責任感和 親切性을 包含한 社會性이 높은 學生이 學業成就에서 뿐 아니라 看護職業人으로서도 成功을 할 것이라는 推測을 갖게 한다.

一般教養教育을 끝낸 三學年 學生中 責任感이 강한 學生은 一般教養成績도 優秀했다($r=.275, p<.05$).

대부분의 醫科學과 일부 教育學으로 構成된 補助科學(S.S.)의 平點과 社會性(S)과는 負의 相關關係를 나타냈다($r=-.226, p<.05$).

二學年까지 履修한 基礎的인 專門教育의 學業成績은 性格의 어떤한 要因과도 有意的 相關關係가 없었다. 여기에서도 基礎專門教育은 看護學의 image를 부각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性格要因과 相關關係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 四學年 學生의 學業成績과 性格要因과의 相關係數를 計算했을 때(Table 3-c):

Table 3-c.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personality test in senior class (N=82)

G.P.A.	Total	G.E.	S.S.	P.E.
A	-.109	-.273*	-.074	-.202
R	.431**	.306**	.384**	.366**
E	.219*	.118	.202	.188
S	.050	-.168	.078	.069
T	.213	-.026	.216	.090

* = P < .05. ** = P < .01.

總平點과 責任性(R)은 三學年에서와 같이 1% 水準에서 正의 相關關係를 보였으며($r=0.431, p<.01$) 情緒의 安定性(E)은 二學年에서와는 反對로 5% 水準에서 正의 相關關係를 보였다($r=0.219, p<.05$). 이와같이 低學年에서 負의 相關關係를 보이는 要因, 또는 뚜렷한 相關關係가 없던 要因들이 高學年에 올라 갈수록 正의 相關關係를 보이는 것은 學年別 性格의 差異, 能力의 差異, 履修科目의 差異도 있지만 時間이 지남에 따라 精神的인 成熟과 教育목표 달성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責任性은 總平點에서 뿐만 아니라 一般教養教育, 補助科學 및 專門教育의 平點과도 1% 水準에서 正의 相關關係를 보이므로서($G.E. \rightarrow r=$

$.306, p<.01$; $S.S. \rightarrow r=.384, p<.01$; $P.E. \rightarrow r=.366, p<.01$) 이는 看護學을 成功的으로 履修하기 爲해 必要한 特性이라고 看做된다.

補助科學과 專門教育의 平點과 相關關係가 가장 깊은 性格要因은 責任性밖에 없다.

4. 全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性格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全學年 學生의 學業平點과 性格要因과의 相關係數를 計算했을 때(Table 4):

Table 4.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from personality test

G.P.A.		Total	G.E.	S.S.	P.E.
Psy. test	A	.081	-.027	-.187**	-.035
	R	.335**	.160*	.113	0.146*
	E	.026	.069	.018	0.060
Test	S	.131*	-.056	-.115	-.001
	T	.256**	.043	-.067	0.054

* = P < .05 ** = P < .01

(N=240)

責任性和 自信感이 높을수록 總平點도 높았으며($R \rightarrow r=.335, p<.01$; $T \rightarrow r=.256, p<.01$) 社會性도 總平點과 有意的 正의 相關關係를 보였다($S \rightarrow r=.131, p<.05$). 責任性은 補助科學을 除外한 모든 系列에서의 平點과 正의 相關關係를 보였다. 支配性(A)이 弱한 學生일수록 補助科學成績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87, p<.01$). Adams와 Klein³⁸⁾은 看護學生 性格構造에 關한 文獻考察을 통하여 看護學生은 服從性이 強하고 支配性이 弱하다는 結論을 얻었다. 그런데 本研究에서는 그 性格要因이 別로 專門教育 平點이나 總平點과 關係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各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

a) 二學年 學生의 成績平點과 自我概念檢査의 諸特性과의 相關係數를 計算한 結果(Table 5-a); 自我評價點數(s.c.)가 낮아 自己防禦의 이거나 自身の 좋은 모습만을 나타내려고 虛偽努力하는 學生일수록 總平點이 높게 나타났다($r=-.468, p<.01$). 그리고 總自我肯定點數(TP)가 높아 自己自身에 대해 肯定的이고 自己를 價値있고 보

Table 5-a.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test of self-concept in sophomore class

(N=83)

Test	G.P.A.	Total	G.E.	S.S.	P.E.
s.c.		-.468**	.027	-.053	.119
TP		.219*	.042	.014	-.017
I		.280*	.012	.084	.060
II		.151	-.035	.000	-.132
III		.154	-.091	-.042	.042
A		.174	.007	.028	.169
B		.264*	.001	.124	.080
C		.094	-.039	-.092	-.111
D		.097	-.084	-.007	-.040
E		.168	-.009	.005	-.173
T.V.		.129	.025	-.052	.284**
C.V.		-.140	-.048	-.130	.282**
R.V.		.213	.119	.074	.259*
d		.173	.009	.103	.184

* = P < .05. ** = P < .01.

랍있는 存在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自我同一性點數(I)가 높아 自尊心이 강하며 自己處地에 대해 肯定的인 學生, 그리고 道德的 自我(B)가 높아서 自己的 倫理的 道德的 基準이 높은 사람일수록 總平點도 높게 나타났다(TP→r=.219, p<.05; I→r=.280, p<.05; B→r=.264, p<.05). 一般教養教育和 補助科學의 平點은 어느 要因과도 有意的關係가 없으며 總變散點數(T.V.)가 높아 自我概念의 恒常性이 缺如된 學生일수록 一部分의 專門教育의 平點이 높았고(r=.284, p<.01) 自我同一性和 自我行動의 點數는 높은 데 反해 自我滿足點數는 낮아 自尊心도 強하고 自己行動도 매우 積極的이나 自身에 對해 滿足하지 못하고 自己에 對한 期待와 標準이 높은 學生 즉 內的變散點數(C.V.)가 높은 學生일수록 專門教育의 平點이 높았다(r=.282, p<.01). 또한 外的變散點數(R.V.)가 높아 自我概念의 恒常性이 없는 學生일수록 專門教育成績이 좋았다(r=.259, p<.05). 그러나 一學年에서의 專門教育은 極히 制限된 基礎的 二科目程度에 지나지 않으므로 臨床看護教育 全盤에 걸친 成功的인 學業成就를 豫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b) 三學年學生의 成績平點과 自我概念의 特性

Table 5-b.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test of self-concept in junior class.

(N=75)

Test	G.P.A.	Total	G.E.	S.S.	P.E.
Sc		.628**	.067	-.270*	.134
TP		.837**	-.309**	-.347**	.010
I		.846**	.134	-.320**	.080
II		.559**	-.088	-.327**	-.110
III		.739**	.032	-.393**	-.041
A		.674**	.084	-.260*	.119
B		.679**	.034	-.364**	-.064
C		.451**	-.061	-.245*	-.107
D		.605**	.049	-.267*	-.459**
F		.570**	-.030	-.357**	-.035
T.V.		.200	-.014	-.209	-.013
C.V.		.140	-.046	-.204	-.045
R.V.		.241*	.075	-.123	.038
d		.308**	.081	-.321**	-.135

* = P < .05. ** = P < .01.

과의 相關係數를 算出할 때(Table 5-b);

두가지 點數 즉 總變散點數(T.V.)와 內的變散點數(C.V.)를 除外한 모든 點數가 三學年學生의 總平點과 正의 相關關係에 있었다. 外的變散點數(R.V.)가 높아 自我概念의 恒常性이 缺如되는 學生에게서 學業의 總平點이 높았으며(r=.241, p<.05) 그의 다른 모든 要因은 1% 水準에서 正의 相關關係였다. 再言하여 總平點이 높은 學生은 自我評價點數(s.c.)가 높아 自己判斷能力이 있는 健全한 學生(r=.628, p<.01), 總自我肯定點數(TP)가 높아 自己自身에 대해 肯定的인 學生(r=.837, p<.01), 自我同一性點數(I)가 높아 自尊心이 強한 學生(r=.846, p<.01), 自我受容點數(II)가 높아 自己自身에 滿足하는 學生(r=.559, p<.01), 自我行動點數(III)가 높아 自己生活에 맞게 積極的으로 行動하는 學生(r=.739, p<.01), 身體的 自我點數(A)가 높아 自己身體 狀況을 肯定的으로 보는 學生(r=.674, p<.01), 道德的 自我點數(B)가 높아 倫理的, 道德的 基準이 높은 學生(r=.679, p<.01), 性格的 自我點數(C)가 높아 安定되고 바람직한 性格特徵을 所有하고 있는 學生(r=.451, p<.01), 家庭的 自我點數(D)가 높아 自己 家庭에서의 不和나 葛藤이 없는 學生(r=.605, p

<.01), 社會的 自我點數(E)가 높아 對入關係가 圓滿한 學生($r=.570, p<.01$) 그리고 分布點數(d)가 높아 自己陳述이 確實하고 意思가 分명한 學生($r=.308, p<.01$)들이라고 解釋된다.

Burgess와 Duffey³⁹⁾는 性格과 關聯된 學業成就 豫言要因中에서 有意的 水準에서 檢證된 要因은 社會的 自我라고 指摘하여 本研究中 三學年 學生에게서 나타난 結果의 일부와 一致하는 것 을 發見하였다.

한편 一般教養教育, 補助科學 및 專門教育의 平點과는 負의 相關關係를 나타내는 要因이 많 이 發見되었는데 이는 解釋하기 어려운 結果라 하겠다. 그中 專門教育科目이 基礎的인 것이지만 그 平點이 높은 學生일수록 家族에 對한 不滿足, 不和, 葛藤 및 敵對感을 나타낸다는 것은 豫想하기 어려운 結果이다.

c) 四學年 學生의 學業成績과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를 測定한 結果(Table 5—c);

性格的 自我點數(C)가 높아 安定되고 바람직한 性格特徵을 所有하고 있는 學生만이 綜合平點과 補助科學의 平點이 높았고(Total→ $r=.248, p<.05$; S.S→ $r=.262, p<.05$) 一般教養教育에서 는 모두 負의 相關關係로서 自我同一點數(I)가 낮아 自己自身을 虐待하거나 自身の 處地에

Table 5—c.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of test of self-concept in senior class (N=82)

Test	G.P.A.	Total	G.E.	S.S.	P.E.
Sc		-.067	-.180	-.099	-.003
Tp		.158	-.211	.157	.129
I		.082	-.279*	.087	.051
II		.156	-.175	.169	.149
III		.188	-.117	.166	.146
A		.135	-.019	.108	.116
B		-.045	-.305**	-.031	.028
C		.248*	-.104	.262*	.154
D		.082	-.159	.034	.147
E		.095	-.247*	.098	.040
T.V.		-.053	-.157	-.076	-.048
C.V.		.070	-.052	.027	.043
R.V.		.129	-.077	.060	.169
d		.116	-.050	.092	.156

* = $P > .05$. ** = $P > .01$.

Table 6.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rade point averages and scores from test of self-concept

G.P.A.		Total	G.F.	S.S.	P.E.	
Psy. test ⁰	s.c.	-.082	-.115	-.093	.047	
	Tp	.035**	-.068	-.143*	.056	
	I	.436**	.047	-.124	.079	
	II	.318**	.007	-.005	-.028	
	III	.379**	.021	-.166**	.068	
	Test of self-concept	A	.306**	.050	-.071	.140*
		B	.336**	-.005	-.145*	.040
		C	.285**	.016	-.099	-.013
		D	.305**	.055	-.152*	-.063
		E	.294**	-.031	-.144*	-.059
		T.V.	.067	-.084	-.098	.107
		C.V.	-.005	-.078	-.099	.251**
		R.V.	.158*	.033	.005	.154*
d	.203**	.037	-.096	.082		

* = $P < .05$. ** = $P < .01$. (N=240)

對해서 卑屈하거나 劣等感을 갖는 學生($r=-.279, p<.05$), 社會的 自我(E)가 낮아 對入關係에서 成功하지 못하고 疎外된 人關關係에 있다고 생각하는 學生($r=-.247, p<.05$) 그리고 道德的 自我(B)가 낮아 倫理的, 道德的 基準이 낮은 學生($r=-.305, p<.01$)은 一般教養教育의 平點이 높게 나타났다. 이 結果는 三學年 學生의 結果와 비슷하며 역시 解釋하기 어렵고 이와 關聯된 다른 研究도 發見할 수 없었다.

절반이상의 專門教育課程을 履修한 四學年 學生에서 專門教育平點과 相關關係가 있는 自我概念特性은 하나도 없었다.

6. 全學年 學生의 前學年까지의 學業成績과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를 計算했을때

自我評價點數(s.c), 總變散點數(T.V.) 內的 變散點數(C.V.)를 除外하고는 모두 有意的 水準에서 總平點과 正의 相關關係에 있다.

즉, 1% 水準에서 相關關係가 있는 特性은 三學年 學生의 自我概念特性에서와 비슷하게 總自我肯定點數(TP), 自我同一性點數(I), 自我受容點數(II), 自我行動點數(III), 身體的 自我點數(A), 道德的 自我點數(B), 性格的 自我點數(C), 家庭的 自我點數(D), 社會的 自我點數(E) 및 分布點數(d)였으며 5% 水準에서의 外的 變散點數(R.V.)은

이었다. 이 결과는 張⁴⁰⁾의 學業成就에 있어서 成功的인 學生은 肯定的인 自我概念을 갖는다는 結果와 一致하는 點이 있다.

一般教養教育平點과 有意的 關係가 있는 特性은 없었으며 補助科學平點과는 모두 負의 相關關係로서 自我行動點數가 낮아 行動이 自己還境에 對해 消極的이거나 否定的인 傾向이 있는 사람이 補助科學平點이 높았고($r = -.166, p < .01$) 總自我肯定點數(TP), 道德的自我(B), 家庭的自我(D) 및 社會的自我(E)도 5% 水準에서 負의 相關關係에 있었다.

內的變散點數(C.V.)가 높아 自尊心이 強하고 自己行動도 매우 積極的이나 自身에 對해 滿足하지 못하고 自己에 對한 期待와 標準이 높은 學生의 專門教育平點은 매우 높았으며($r = .251, p < .01$) 身體的 自我點數가 많아 自身의 身體狀況을 肯定的으로 보는 學生($r = .140, p < .05$)과 自我概念의 恒常性이 없는 學生($r = 0.154, p < .05$)은 專門教育成績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自我概念의 恒常性이 낮은 學生이 專門教育平點 및 總平點이 높다는 結果는 解釋하기 어려운 結果이다.

I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의 主要目的은 看護學生의 學業成就와 諸般 心理的 特性間에 어떤 相關關係가 있는가를 究明하는 것이다.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二, 三, 四學年學生 240名을 對象으로 하여 前學年까지의 總平點, 一般教養教育平點, 補助科學平點 및 專門教育平點과 興味檢査, 一般性格檢査 및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를 算出하여 얻은 結論과 提言은 다음과 같다.

1. 學年別 學業成績과 興味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를 살펴본 內容에서 學業成績과 有意的 相關關係가 있는 興味要因이 各學年別 履修科目의 特性과 學生自身의 特性에 따라 變動이 심하다. 즉, 低學年은 一般教養科目이 많고 高學年이 될수록 補助科學과 專門教育科目의 順序로 많아지므로 興味領域의 有意度檢證에서 學年別로 서로 다른 結果가 나타났다.

2. 興味檢査에 依해 學業成就의 豫言道具를

製作하려 할때는 되도록 教育目的, 教育課程 및 教育方法이 같은 學校의 學生을 標集對象으로 擇하면 보다 正確한 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生理 및 病理學을 重視하는 教育課程을 가진 學校와 人間の 성장 발달을 중요시하는 교과과정을 고수하는 학교에서의 興味檢査에 依한 學業成就豫言力을 測定하는 道具는 判異하게 다를 것이다.

3. 學年間의 差異를 無視하고 全學年學生의 興味要因과 學業成績과의 相關係數를 計算한 結果 總平點과 正의 相關關係가 있는 興味要因은 生物科學, 物象科學, 事業 및 人間福祉에 關한 興味였다.

그리고 一般教養教育이나 補助科學의 成績이나 科落하는 學生이 있기는 하지만 專門看護教育에 興味가 있고 그 成績이 좋으면 永久히 脫落하지 않을 것이라는 前提下에 總平點과 專門教育平點이 同時에 有意的으로 正의 相關關係를 갖는 興味要因을 찾아 보았을 때 物象科學의 興味만이 該當되었다.

4. 學年別 學業成績과 性格檢査特性과의 相關係數에서도 學年에 따라 多様な 結果를 나타내었다. 이는 各學年別 學生의 特性과 高學年이 될수록 人格의 圓熟(maturation)⁴¹⁾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結果를 招來했으리라 생각된다.

5. 責任性은 高學年에서는 여러 系列의 成績과 높은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냈다.

6. 全學年學生의 性格要因中 綜合成績과 專門教育成績과 同時에 有意的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는 要因은 責任性이었다. 그런고로 이 責任性은 看護職에 必須的인 性格要因이라고 看做된다.

7. 各學年別 學業成績과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의 相關係數도 各學年마다 그리고 教科系列에 따라 深한 差異가 있는 相關係數를 나타냈다.

8. 全學年學生의 綜合成績과 專門教育成績이 同時에 自我概念檢査의 特性과 有意的 水準에서 正의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는 要因은 身體的 自我와 外的變散點數이다.

즉, 自己身體狀況을 肯定的으로 보는 學生과 自我概念의 恒常性이 缺如된 學生이 綜合成績과 專門教育成績이 優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制限된 內容을 다른 基礎的인 教科로 構成

된 1—2學年에서의 專門教育은 諸心理檢査와 有意的 相關關係가 있는 要因이 적었다. 그러므로 看護專門教育의 成功的인 學業成就를 豫言하기 爲한 研究에서는 臨床 내지는 地域社會看護學成績을 準據(criteria)로 定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일 것이다.

10. 學年別特性으로는 現在 三學年이 다른 學年學生에 比해 學業成績과 正의 相關關係를 갖는 要因이 훨씬 많았다.

參 考 文 獻

- 1) 李劍奎, 李寬鎔: 學生의 生活環境이 學業成就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學生研究 8 : (1)1—30, June, 1971.
- 2) 홍신영 外 2人: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연구, 서울, 1969.
- 3) 李誠學, 洪京子: 保健看護員의 職業에 對한 滿足度 및 就業動機에 關한 調查(1969년도), 中央醫學 18 : 353—362, May, 1970.
- 4) 김신혜: 임상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원의 직업만족에 관한 소고, 대한간호, 4 : (3)38—45, 4 : (4)22—28, 1965.
- 5) 김설자: 大學看護學生의 職業觀에 關한 一 調查, 이화간호학회지 4 : 13—30, 1970.
- 6) 이은옥, 우옥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학전 제 특성 및 태도와 입학 후 갖게되는 전문간호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 10 : 25—37, Feb. 1971.
- 7) 河英洙: 四年制 看護大學에 關한 調查研究 (I)—入學動機 및 教育課程에 對한 反應調查, 한국생활과학 연구원 논총, 3 : 139—152, 1969.
- 8) 林承權: 1969년도 서울大學校 新入生調查, 學生研究, 7 : (1) 45—62, Dec., 1969.
9. Ibid.
- 10) 林承權, 李寬鎔: 大學卒業生의 動態에 關한 研究, 學生研究, 8 : (1)31—42, June, 1971.
- 11) Burgess, Michael M. and Duffey, Margery: The prediction of success in a collegiate program of nursing, Nursing Research, 18 : 68—72, Jan.—Feb., 1969.
- 12) Owen, Steven V. and Feldhusen, John F.: Effectiveness of three models of multivariate reaction of academic success in nursing education, Nursing Research, 19 : 517—525, Nov.—Dec., 1970.
- 13) Willingham, W.W.: Interpretation of relative achievement,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1 : (2) 101—112, 1965.
- 14) 김승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8 : 9—11, July 31, 1971.
- 15) Spaney, Emma: Personality tests and selection of nurses, Nursing Research, 1 : 4—26, Feb., 1953.
- 16) Burgess, Michael M. and Duffey, Margery: The prediction of success in a collegiate program of nursing, Nursing Research, 18 : 68—72, Jan.—Feb., 1969.
- 17) Taylor, C.W. and Others: Selection & recruitment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Salt Lake City, Utah, University of Utah Press, 1963.
- 18) Ibid.
- 19) Reece, M.M.: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uccess in a nursing program, Nursing Research, 10 : 172—176, Summer, 1961.
- 20) Bailey, June T. and Claus, Karen 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18 : 320—326, June Aug., 1969.
- 21) Thurston, J.R. and Brunclik, Helen L.: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achievement in nursing education. Nursing Research, 14 : 203—209, Summer, 1965.
- 22) Thurston, J.R. and Others: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achievement in nursing education phase II. Nursing Research, 17 : 265—268, May-June, 1968.

- 23) Bloom, B.S.: Mastery learning and its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Eisoner, E.W. (ed). *Confronting Curriculum Reform*,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71.
- 24) Bloom, B.S. and Others: *Handbook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New York, Mc Graw Hill Book Company, 1971.
- 25) Bruck, Max and Bodwin, R.F.: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presence and absence of scholastic underachievement. *Journal of Clin. Psychol.*, 18 : 181—182, April, 1962.
- 26) Purkey, W.W.: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 27) Ibid.
- 28) 이은옥, 우옥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학전 제 특성 및 태도와 입학후 갖게되는 전문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대한간호*, 10 : 25—37, Feb., 1971.
- 29) Burgess, Michael M. and Duffey, Margery: The prediction of success in a collegiate program of nursing, *Nursing Research*, 18 : 68—72, Jan.-Feb., 1969.
- 30) Johnson, Richard W. and Leonard, Louise C.: Psychological test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19 : 147—150, March-April, 1970.
- 31) Burgess, Michael M. and Duffey Margery., Op., Cit.
- 32) Ibid.
- 33) Ibid.
- 34) Ibid.
- 35) Johnson, Richard W. and Leonard, Louise C., Op. Cit.
- 36) Levitt, Eugene E.: *The Psychology of Anxiety*,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Inc., 1967.
- 37) 홍신영 외 2명 :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 서울, 1969.
- 38) Adams, Jerry and Klein, Lilyan R.: Students in nursing school: Consideration in assess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Nursing Research*, 19 : 362—366, July-Aug., 1970.
- 39) Burgess, Michael M. and Duffey, Margery., Op. Cit.
- 40) 張錫敏 : 學業成就와 自我概念의 關係에 관한 研究(Unpublished masters thesis), 서울대학교 教育大學院 教育課程 專攻, 1971.
- 41) Stauffacher, James C. and Navran Leslie: Prediction of subsequent professional activity of nursing students by E.P.P.S. *Nursing Research*, 17 : 256—260, May-June, 1968.

=Abstract=

Study on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est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a Baccalaureate Program—

Eun-Ok Lee and Mi La Lee

Nursing Department of Medic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tool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of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in Korea so as to identify as early as possible those students who should receive special instruction and to improve screening procedures for admission of nurs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rade point averages of courses learned and their psychological test characteristics in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All 240 students, except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pring semester, 1972,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of the subjects completed the psychometric tests such as interest test, personality test and test of self-concept. Total grade point averages, grade point averages of general education subjects, of supporting science courses and of professional education subjects were used as performance criteria of the students.

Through the calculation of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est scores and four grade point averages of each class and of total subjects, the following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were obtained.

1. There was so much variation in characteristics of interest test correl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each class.

2. Since the school objectives, curriculum and teaching strategies may affect predictive efficiency of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terest test, interest test must be utilized in a homogeneous group in order to predict school achievement.

3. Characteristics of interest test positively correlated at significant level with total grade point averages of all subjects were scientific interest-biological, scientific interest-physical, and humanitarian interest. Scientific interest-physical was the only characteristic positively correlated at significant level with total grade point averages and grade point averages of professional courses.

4. There were various patterns in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test correlated with school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by class pattern and personality maturation as they progress toward higher classes.

5. A characteristic of personality test, responsibility, is in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the upper division of classes.

6. Responsibility was the sole personality factor positively correlated at significant level with total grade point averages and grade point averages of nursing courses in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7. There were very differ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aracteristics of self-concept test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each class and type of courses they learned.

8. Characteristics of self-concept test positively correlated at significant level with total grade point averages and grade point averages of nursing courses of all students were physical self and row variability. Those who have positive concept on their own physical status and who are deficient in self-concept were higher in total grade point averages and grade point averages of professional courses than other students.

9. Scores of professional courses offered in freshmen and sophomore classes were in positive correlation with limited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tests. In pursuit of a tool predicting successful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ir G.P.A. during the junior and senior year of nursing will serve as the more reasonable criteria.

10. Junior students of this school were in higher positive correlation with many psychological factors than other classes.